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7)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교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매일 주어지는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레지 조이너는 식사시간, 이동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그리고 아침시간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첫째, 식사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귀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은 자신의 생각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날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폭넓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이동시간입니다.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을 교육적인 대화를 갖는 시간으로 이용하면 지루함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기 전에 리더십에 관한 문제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는 질문거리 등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아이들의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거려줄 수 있는 아주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머리에 심어줄 ‘요점’ 과 가슴에 새길 ‘그림’ 을 그려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경험담을 통해 현실 속에서 신앙의 체험과 살아가는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아침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유머를 사용해 하루를 출발하게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자녀교육의 4가지 시간 활용 방법으로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네 가지 시간 활용법을 잘 사용해서 모두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두란노 아버지 학교